

지체장애 인식에 대한 개념분석

정 명 실*

1. 서 론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간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하려면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공통된 개념을 인지해야 한다. 개념이란 현상에 대한 마음의 표상(mental image)이며 사물이나 행동에 관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념(idea)이다. 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재(reality)를 분석하는 작업은 지식체를 발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런 현상이나 관념을 언어형태로 변화시킨 것이 개념이다(Walker & Avant, 1988).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우리들의 관념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일 뿐이지 언어, 단어 그 자체가 개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어나 단어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관념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Munhall & Oiler, 1986). 개념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분류하도록 한다 (Walker & Avant, 1988). 특히 간호현상과 관련하여 임상실무에서 모호하게 통용되는 개념을 분석하여 분명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과제이다. 단어의 개념이 혼동된 상태에서 그 단어를 활용한 연구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론은 개념들로 형성되므로 개념의 본질을 생각함으로써 이론이 무엇이 다라고 말할 수 있다(Chinn & Kramer, 1995).

따라서 개념분석은 이론개발에 대한 필요한 분석 기법 중 가장 우선적인 과정이며 반성적인 사고과정이다(Hesook Suzie Kim, 1983).

일반적으로 장애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신체장

애가 마치 정서적, 심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거부나 회피 및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가치 없는 존재나 열등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 차별하려고 한다는 지, 건강한 사람과 다른 존재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과 같이 취급하려는 잘못(Pedretti & Zoltan, 1990)이 있다. 그러나 요즘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도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는데 그들을 표현한 순화된 용어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이미 일반화되었고 표준적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전에는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소경, 곰보, 언쟁이, 외눈박이, 애꾸눈이, 절뚝발이, 곰배 팔이, 육손이등등(한국어문규정집, 1995)의 일견 비속적인 표현에 속했던 용어들이 순화된 용어로 고쳐부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 지체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간호학적 견해에서 개념분석하여 장애자에게 직접적인 돌봄관리를 시행하고자 한다.

한 민족 공동체로 살아온 국민들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기본 형식을 습득한다. 이런 문화적응 결과는 환자와 건강관리 면에도 적용되며 또한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Harwood, 1981). 한국적 문화는 특정한 분위기로 형성되어 우리가 한국적 생활양식을 체득할 수 있게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한국문화의 소산이다(고영복, 1975). 우리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유교국가로서 체면을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송병락, 이원복, 1993)에서 장애자에 대한 인식은 보다 특별하다.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조교수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생

못한 인식, 즉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는다(강위영, 1991).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장애이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참여의 길이 막히고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불행은 크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나 불이익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안병준, 1991).

우리의 의식구조에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한 개성일수록 비가치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식 속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을 비가치화하고 멸시와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정상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멸시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이 하루 속히 불식되어야 하고 사회환경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도 소외감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문석남, 1991).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때에 장애자를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삶도 역시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통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신체상 변화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보다는 '행동하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Carlson & Blackwell, 1978).

최근에 간호사들은 장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대상자를 사회의 능동적인 일원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1690년대 부터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지만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특별히 지체장애자본인, 간호사, 가족, 일반인들의 장애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출생,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지에 장애를 입은 대상자자신과 제3자(가족, 간호사, 일반인)의 장애인식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지체장애인에 관한 바람직한 간호실체이론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개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식의 사용범위를 제시한다.
- 2) 장애인식의 속성을 규명한다.
- 3) 장애인식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인접사례, 관련사례, 창안사례를 제시한다.

- 4) 장애인식 개념의 선례 및 결과를 확인하고 경험적 증거를 결정한다.

II. 본 론

1. 장애인식현상

1) 사전적 정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아는 작용 즉 감각이나 지각으로부터 기억,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의식의 작용, 외적, 내적경험에 반성을 주어 이것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에 흡수하는 것이다.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대상, 객관 및 양자사이의 인식관계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스피라 철학에서는 추상적 인식, 포괄적 인식, 직관적 인식, 실질적 인식넷으로 나누었다(세계백과대사전, 1982). 인식작용은 과학의 대상으로서 지각, 기억, 지능등의 요소에 있어서 심리학, 사회학등의 대상이 되나 인간의 인식작용을 전체로써 고찰하고 그 근본적인 성립조건을 고찰하는 것은 철학의 한 분야로의 소관이다(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7).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인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일이며 깨달음, 판단을 포함한 앎의 과정, 활동으로서의 recognition과 의식하고 지각하는 작용의 총칭인 cognition은 앎, 사고, 학습, 판단에 의하여 특징되는 정신적과정이며 Conation은 욕망, 충동, 의지, 분투에 의한 정신과정이며 Cognition은 Perceiving, Thinking, Remembering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데(Miller & Keand, 1983 : 동아마스터 국어사전, 1987; 이승녕, 1992 : Webster사전, 1977)이를 의미한다.

인간의 의식은 사회가 체계있게 조직화된 하나의 구조인 것 처럼 그 자체도 하나의 구조를 이루므로 인간의 의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의식구조라고 한다. 일부학자들은 인간의 의식구조를 사고의 대상에 대한 범주화와 이것에 대한 평가, 행위 의사, 행위규범, 태도 및 가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다른 학자들은 기능에 대해 인지(cognition), 감정(affection) 및 능동(conation)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구조를 사물에 대한 이미 지나 그것에 대한 평가로 나누고 인간의 행위는 이 두가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물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 의식의 인지적 요소로 인간의 지식, 믿음이 포함되고 평가는 규범적 요소로서 가치와 규범이 포함된다(김태길, 김동일, 박세일, 황경식, 1988).

Webster(1977) 사전에는 인식(recognition)은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나 상태 즉 이전에 봤던 객관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knowledge)이나 감정(feeling)이다. 또 reconize

는 다른 것과 구별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인지자의 머리 속에는 몇개의 전제조건이 있어 그것과 합치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perceive는 감각, 지각, 기억, 사고등의 모든 조건은 필요없이 감각적으로 지각(知覺)하는 것이며 identify는 사람이 바로 그자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Webster영한사전, 1987).

개인의 신체는 내외적 지각의 원천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신체상(body image: 身體想)은 개인의 신체외모에 대한 그의 주관적 개념으로 이는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지 간에 정신적 표현, 자기 관찰, 다른 사람과의 작용,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 정서, 기억, 환상, 경험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Mosby 의료간호사전, 1983).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이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대화를 들음으로서 자신의 신체상을 인식한다(Carlson & Blackwell, 1978).

지체 장애대상자들 자신의 신체상 인식은 주로 장애자나 병신이였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7)에는 병신이란 ① 병든몸, ② 모양을 제대로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 불구자(cripple), ③ 재주나 지력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fool)으로, 새국어사전(1994)에는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다치거나 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지체장애란 몸통이나 사지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기거등 기본활동이 부자유할 뿐 아니라 장차 생업에 종사하는데 더욱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장애로 뇌성마비, 소아마비, 근육디스트로피, 말초신경손상, 관절염, 척수장애, 뇌졸중, 기형, 절단등이 있다.

WHO(1980)에서는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불이익(handicap)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손상(impairment)은 출생시, 질병, 사고, 상해로 야기된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에 대한 상실이나 비정상상태를 뜻하며 장애(disability)는 손상의 결과 일어나는 활동의 제한이나 능력부족이며 불이익(handicap)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의 역할 기대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상이나 장애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이다. 따라서 불이익은 손상 그 자체와 구별되며 사회구조에 대해 더 초점을 두는데 강조하는 점은 장애로 인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정상인의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다.

1981년 우리사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선언' 1항에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

했다. 사회적으로 무시되었던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선언까지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형식적이고 외적인 배려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나 의식전환이 아직까지는 절실한 상황이다.

2) 문화 사회적인 측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간관계의 시작단계에서 외모, 인상이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인생의 근본문제에 연관되는 운명론에까지 결부되어 왔다. 결국 관상학, 수상, 족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전통사회에 있어서 외모에 따른 의식경향으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외모내지는 신체상에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운명론적인 면까지도 결부시키는 경향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지체장애인들로서는 일반인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감정적, 정신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Murray는 환경적 요인이 인간성격형성에 주 역할을 하며 발달과정을 포함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전체적 인식없이 개인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상노, 이관용, 1995). 개인 또는 집단의 인지능력(Cognitive Competence)를 사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문화 또는 하부 문화속에서 해석야 한다(Bronfenbrenner, 1989). 대개의 경우 사회적 요구 내지 압력이 일상생활을 강하게 지배하는데 이 사회적 요구는 자기가족, 친구, 사회, 국가등에서 오며, 개인은 활동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처한다(최정훈, 1972). 그래서 한 개인의 의식은 그가 사는 주위의 생활환경과 삶의 세계에 영향을 받게되며(국민윤리교육연구회, 1980) 인간의 행위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Wenger, 1985). 많은 학자들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인지, 해석, 도움구하기등에 문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개인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그들 입의대로 하는 인지적, 설명적, 행동적 선택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Ronald & Troits, 1987).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그가 속한 문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과 관련된 행위 또한 해당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최정훈, 1972). 개인은 자신의 문화적, 민족적 배경에서 건강, 질병, 질환을 인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개인이 살고 있는 세계안에서 우세한 신념체계의 과학적 인식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Brenfenbrenner, 1989). 문화가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어떤 지역은 질환의 원인이나 유행병의 원인을 밝힐 수도 있다. 'soul loss', 'spirit possession' 과 '햇병', '담',

‘골치’같은 질병은 전문적 교육 과정동안에 거의 기술되거나 논의되지는 않지만 이런 관념 역시 주어진 질병의 원인에 대한 사람의 지각에 관여하며(Spector, 1985)는 문화연계증후군과 관련된다.

한 문화 배경에서 자란 개인은 그의 감정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하지만 다른 문화 배경에서 자란 개인은 그의 진짜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전통적 건강신념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문화적 요소들은 세균, 바이러스만큼이나 현실적이다. 전통신념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유효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임상현실을 이해해야 한다(Spector, 1985). 한국이란 사회는 세계 제일의 유교국가로써 선비정신이 강하며 체면을 중시하며 현재를 중시하며(송병락, 이원복, 1993) 개체의 선택을 용서하지 않고 집단의 동질성을 똑같이 나눠 누리는 특성이 있다(이규태, 1993). 서구사회에서는 사회보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가치 기준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결정이나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책임을 지는 존재다(Williams, 1989). 또 우리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발달장애아동을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비록 정부등의 기관에서 양육비를 받지만)입양까지 해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Rodriguez & Jones, 1996). 간호사는 이런 문화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여 장애자에게 바람직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병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막 9:17),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막 9: 25),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도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뱅이가 나오니'(행 8:7)라고 하여 병어리를 귀신들린 자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사 56: 10)하여 무능자로 보았다. '만일 네손이나 네발이 범죄계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손과 두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 보다 나으리라'(마 18: 8),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멀과 경심중으로 치시리니'(신 28: 28)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 죄로 인함이니이까 할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 1-3)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는 등 여러 구절말씀으로 귀신, 무능자, 하나님의 영광, 심판등을 표현할 때 장애인을 예로 들었

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생식불구자인줄 모르는 아내는 ..., 검사를 하여서 자기가 불구자인 것이 판명이 된후에는...."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지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불구자임을 감추려고 하였는데 이런 사고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1925)에서는"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기 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병어리', '병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한다. 속으로 '나는 병어리다'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계몽록의 '백치아다다(1935년)에서는 "아다다는 병어리였던 것이다. 말을 하려 할 때는 한다는 것이 아다다 소리만 연거푸 나왔다. 뚜렷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다다였다. 부모까지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거니와 그 자신도 '아다다' 하고부르면 마땅히 들을 이름인 듯이 대답을 했다. 몇백원 돈이 굴게되니 까닭없이 남편이 되는 사람은 병어리로서의 아내가 미워졌다. 아이들은 아다다를 보기만 하면 따라 다니며 놀렸다. 아니, 어른들 까지라도 '아다다, 아다다' 라고 골을 울려서 분하나 말을 못하고 이상한 시늉을 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봄으로 행복을 느끼는 듯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아다다는 남이 놀리고, 사회적인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는 것에 분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동인의 '광화사'(1930)에서는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같다, 눈이 등방을 같다, 귀가 박죽같다, 입이 나발통 같다, 얼굴이 두꺼비비 같다. 소위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를 한 얼굴에 지닌 흉한 얼굴의 주인으로서 그 얼굴이 또한 굉장히도 커서 이 얼굴을 가지고는 백주에는 나 다니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철이든 이래 아직껏 백주에 사람틈에 나다니던 일이 없었다. 장가도 들어보았지만 색시도 이튿날 무서워서 도망 갔다.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 오다가 그 피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란 것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세상이 주지 않는 아내를 자기는 자기의 붓끝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비웃어 주리라. 보매 그 병신눈은 깜박일 줄도 모르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 천치같은 눈을 보매 하공의 노염은 더욱 커졌다. '에이, 바보야, 천치야, 병신아!...."여기서는 얼굴의 흉한 모습 때문

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장애인과 장님이 나오지만 우리의 사회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상의 작품에서 장애인의 삶이 현실과 사회의 억압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사회에서는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 역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자세에서만 이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돌봄을 위주로 활동하는 간호영역에서 술선수범하여 중재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속담은 세상에 흔히 돌아다니는 알기 쉬운 격언(이승녕, 1992)으로 풍자, 비판, 교훈을 간직한 짧은 구절로 서민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으나 고전이나 고사에서 나와 유포된 것으로 어조(語調)가 좋고 간결하며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큰효과를 올릴 수 있다(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87). 우리나라의 속담일부를 병신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살펴보면 '병신 고운데 없다(못난 사람치고 얌전한 사람이 없다는 뜻), 병신이 끝값한다(못난 사람이 못난 것만 한다), 병신이 달밤에 재주한다(못난 사람이 못난 것만 가려서 한다)등 병신에 관계되는 속담(송재선, 1983)이 그외에도 무수히 많고 장님과 귀머거리등의 속담도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는 잘못되어 장애가 왔으며 심하면 천벌을 받았다고까지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입장은 임상에서만 간호를 시행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넓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환경적, 제도적인 면을 개선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며 장애자의 재활, 악화에방에 우선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하겠다.

2) 문헌고찰

(1)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Image 즉 신체상(body image)을 지니고 있다. 신체상이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념으로 단순한 외모 뿐 만이 아닌 신체기능, 지각능력, 운동성을 포함한 신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 및 감정과 지각의 끊임없는 변화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산물을 말한다(McCloskey, 1976). Norris(1978)은 '신체상은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정보, 감정,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고 다른 것으로써 공간 내 개인의 신체에 관한 지각의 꾸준한 변화의 전체다. 그것은 사회적 창조이며 개인의 신체에 관해 반영된 지각을 통해 발전되고 개인이 살아가는 활동의 변화무쌍한

다양함에 대처할 때 신체 내부 영역으로 근원이 되는 감각에 반응한다. 신체상은 주체성에 기초가 되며 신체자아로써 언급되어 왔다'고 하였다. 신체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복합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결정해 준다(Luckmann & Sorenson, 1974).

사람이 신체를 인지하거나 평가할 때 개인의 신체는 그의 안전성과 자존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 개념은 그 자신의 외모, 한계, 제한점 그리고 내부구조와의 관련하는 모든 그의 지각과 지식을 포함한다. 인간의 신체상은 신체 내부와 주변환경에서 오는 감각 메시지를 통해 발전하는데 신체상이나 신체 외모에 대한 정신적 상은 꾸준히 변화한다(Roberts, 1991).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 영향은 질병 발생 및 치유와 회복에 관여하고 있다(전산초, 1978). 질병은 개인의 신체상, 역할수행, 자아에 대한 기대에 작용하여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Kolb(1959)는 신체상을 신체의 겉모습, 신체내부, 신체형태 뿐 아니라 신체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 감정, 성격의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즉 신체상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 확대시켜 대인관계,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신체상을 통해 호기심, 감정의 표현, 사회와의 관련성, 의무감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Horowitz(1966)에 의하면 신체상은 신체와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의 특수화된 내적 자료 중추로써 내적이고 외적인 지각, 기억, 정서인식 및 활동과 계속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Fisher(1968)에 따르면 신체상은 하나의 정신적 경험으로써 신체에 관련하며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느낌에 관련함을 믿는다. 각 개인이 발달할 때 그는 그의 신체 감각들을 의미있게 조직하는 어려운 과업을 갖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의 전 지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합적인 현상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써의 신체상은 그것 자체를 과거와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추출한다. 그것은 심리적 변인으로 규정되어졌으며 가지각색의 상황 속에서 개인이 그의 신체를 경험하는 가운데 학습절차의 과정 속에서 점차 형성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한다(Roberts, 1991).

O'Brien(1980)은 신체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기본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결정짓게 한다고 하였다. Severyn(1969)는 신체상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 형성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을 말하거나 또는 신체가 자신에게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예를들어 어떤 삶이 자신은 매력적이지 않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체상은 개인의 능력 발달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상은 우리가 생각한 외모만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는다. 기능, 감각과 변동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신체적 자아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은 하나의 인간으로써 우리자신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을 형성화 한다. 신체상은 "신체적 자아"에 대한 정신적 양상으로 개인의 신체적 외형, 정신상태, 기술, 성적능력등에 관한 태도와 지식을 포함한다(Roid & Fitts, 1988).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자아의 구성 요소로써 자아개념은 세계를 개인적 인지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와 상호작용한다(Fitts, 1971). 신체상과 자아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LeMone(1991)은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로써 신체상을 이해했다. 신체상의 경계는 자아의 경계를 에워 싸는 것 보다 더 좁은 개념상의 영역을 에워 쌓는다. 이때 신체상이 확장될 때 자아도 같이 확장된다(Hagglund & Piha, 1980). 개인의 완전함은 그 자신의 사적인 자원에 의존할 뿐 아니라 동등하게 끊임없이 그 주변의 환경에 참여되는 상호작용에도 의존한다(Levine, 1969).

신체상은 정상적인 생의 주기에서 계속 변할 뿐 아니라 질병, 수술, 사고시 더욱 손상을 받고 변화된다(Norris, 1970). 신체 부분의 질병이나 불구는 특별한 신체부위에 관심을 집중 시켜 신체상에 변화를 초래한다. 질병으로 심하게 아프면 의존감, 불편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McCloskey, 1976). 신체내 어떤 변화는 통합성의 파괴 즉 자아의 위협이다. 개인이 자아에 대한 위협에 적응하는 방법은 그의 생애동안 스트레스에 적응해 온 방법에 의존한다. 적응하는 역량은 개인의 교육배경, 노동형태, 가족, 그리고 가치에 달려 있다. 가치를 소유하는 것은 지각되거나 혹은 경험한 정보를 포함한 현상적 자아를 말한다(Roberts, 1991).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체상은 신체외모에 대한 그의 주관적 개념으로 이는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간에 정신적 표현, 자기관찰, 다른사람과의 작용,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 정서, 기억 환상, 경험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체상을 신체적 자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포함하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반응이라고 보았다.

(2) 선행연구

전봉윤(1991)의 연구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장애인이 느끼는 자신의 성격문제와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 느끼고 있는 성격문제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불신감과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괴리적인 형태의 관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에 근간이 되는 사회심리적 문제의 극복 및 해결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 즉 주택, 의료, 사회, 문화, 생활보장, 신체보장구 및 이동에 대한 배려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애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일반자녀의 견해조사(이청자, 1995)에서 장애와 관련된 태도와 생각에 차이가 나는 정도를 밝힘으로 어머니와 장애복지관련 종사자에게 일반자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장애아를 둔 가정의 2차적 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은주(1992)의 연구에서는 장애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머니의 일반형제 집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집단보다 장애 형제에게 적대적이고 장애형제에게 부정적이었음을 밝혔다. 김명선(1988)은 정상인 형제들이 정신지체된 형제의 존재에 대해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사회에 대해 형제를 떳떳하게 밝히고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정은순(1993)은 정신지체아의 정상형제자매에 대한 자아개념과 좌절감 연구에서 가정환경이 자아 개념과 좌절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시사하였으며 이경희(1992)는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은 장애 아동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주며 특히 아버지 측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였다. 황옥남(1996)은 경수환자를 위한 효능기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그들의 자기효능, 주관적 자기간호행위, 일상생활능력 및 사회적 활동 특별히 외출, 교회참석, 친구, 동료만남이 증가되고 취미활동을 증진시켰으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증진시켰다.

일부문화에서 장애는 우연한 신체적 손상, 정신, 마법과 같은 초자연적인 원인이나 에너지 불균형과 같은 형이상학적 원인 혹은 나쁜 바람 때문에 초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애의 의미는 축복이나 천벌로 받아들인다(Kagawasinger, 1994).

Gath(1972)의 연구에는 장애아의 성별, 장애 유형은 형제자매의 출생순위와 성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지체장애인식 개념의 속성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 장애인식의 개념을 토대로 선정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거등 기본활동의 부자유스러움에 대한 느낌이다.
- 2) 감각, 지각, 기억, 사고등의 의식적인 작용이다.
- 3) 주변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 4) 가치, 태도, 느낌, 경험으로 형성된다.
- 5) 역동적이다(변하며 정체하지 않는다).

장애인식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속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 보았다. 즉 장애인식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거등 기본활동이 부자유하다는 감각, 지각, 기억, 사고등의 의식적인 작용으로 그 사람의 태도, 경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타인과의 작용으로 변화기도 한다.

3. 여러가지 사례들

다음 모델사례와 인접사례, 관련사례는 연구자가 1996년 K의료원에 입원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들이다

1) 모델사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개념이 사용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사례이며 정의된 개념의 중요속성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어야 한다. 모델사례 설정으로 속성을 검증하고 다른 개념과 구분짓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인이 아닌 지체장애자의 장애인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43세된 김씨는 사고가 난지 6년이 되었다. 사고가 나기 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보다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신은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아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였고 자녀를 일찍 두었다.

사고후 다리를 절단하자고 제의를 받았으나 망설이고 2년 정도 치료만 받다가 결국 절단하게 되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었으며 '다리도 없는 병신을 누가 써 줘니까?' 하며 한탄하였다. '처음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자기 상실감에 빠졌지만 의식이 변화되어 생활을 즐기면서 살자는 유형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아직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워 수영까지는 못하고 있던 차에 미국령에라도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

었지만 장애인이라는 스스로의 자의식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수영을 못하고 말았다.”

위의 모델사례에는 장애인식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사고 나기 전의 자신만만 했던 신체상에 비해, 사고 난 후에는 신체상으로 병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리도 없는 병신이라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따가움을 표현했으며 한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장애자라는 관념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님으로서 타인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2) 반대사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이 반대사례와는 다른 무엇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대사례는 분석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반대사례는 모델사례에서 도출된 속성의 반대 측면으로 장애인식의 속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금은방을 하고 있는 김씨는 일류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졸업하였으나 결혼 할 때 처가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연애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마음이 곱고 장사수단이 좋아 금은방을 잘 운영하였으며 여기저기 주문을 맡아 외근을 자주 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나다니기 보다는 시계수리나 가게를 주로 지키고 있었으므로 아내가 나다니거나 늦게 오는 것을 몹시 싫어 했으며 이는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가게에 손님이 있든 없든 부인이 들어 오기만 하면 큰소리로 떠들고 어떤 때는 때리기 까지 하였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장애가 있어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 표시라 여기고 남편에게 더욱 잘한다.”

이 반대사례에서 김씨는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을 장애자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장애자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으며 본인이 밖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야단을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

3) 인접사례

인접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중에 일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사용의 실례인데, 이 예를 통하여 왜 사실 혹은 모델사례가 아닌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 개념이 명확하거나 중요한 속성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30세된 이씨는 교통사고로 왼쪽허벅지까지 다리를 절단하여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의족을 차게 됨으로서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전혀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자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시장에서 가방가게를 열었으며 의족을 찾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얼마전에 사귀던 여자와 곧 결혼도 할 예정이었다.”

위 사례에서는 자신을 불구자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 자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사회에 부적응하지는 않고 일반인과 교제도 하고 주의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4) 관련사례

관련사례는 연구중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나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의 예이다.

“33세된 김씨는 3년 전 소를 물고 가다가 넘어져 대퇴가 부러지고 수술한 부위가 골수염이 생겨 절단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감염된 뼈는 잘라버리고 Ilizarov기구를 착용하여 신체중 잘라버린 뼈 8cm를 늘리고 있으며 기구 드레싱도 혼자서 잘하고 다리가 늘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불구자는 아니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현재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치료요법에 따르지만 주변의 상호작용 보다는 Ilizarov라는 기구에 의존하고 자신의 가치, 느낌과는 관계가 없으며 신체상에 대한 지각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5) 창안된 사례

모델사례와 같이 신체상의 속성이 모두 통합된 것으로 우리들의 경험 밖의 사례를 사용해서 구축되는 경우이다.

“44세된 박교수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양쪽다리에 손상이 와서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 부모들의 배려로 일반학교를 다녔으나 매우 내성적이고 주변 아이와도 잘 사귀지 않았다. 일류고등학교와 일류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체장애 때문에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씨클활동 및 각종 동기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많은 책을 읽었고 말주변이 좋은 그는 양쪽 모두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모임에서도 스스럼 없이 사회를 맡고 곧잘 농담도 잘 했다. 현재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며 장애인을 위한 협회에도 나가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장애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하였으며 남과의 작용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게 적응을 한 사례였다.

4. 선례 및 결과

이 두 단계는 흔히 무시되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환경에서 고려할 만한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속성을 한층 더 다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례는 개념의 발생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장애인식의 선례로는 사고, 질병 등으로 사지상실을 한 대상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가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속한다. 또 어떤 한정된 관념 속에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장애인식의 결과는 대상자가 사회의 시각, 자신의 위치, 장애등을 극복하여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으로 믿고 일상생활등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거의 열등감 없이 지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장애인식의 결과는 특별히 장애자라는 현실로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며 타인과의 작용 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지체를 절단할 위치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역할은 올바른 가치관과 신체상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경험적 증거

장애인식의 개념분석의 최종단계는 중요한 속성을 위해 경험적 증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험적 증거란 경험 세계에서 존재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뜻한다(Waker & Avant, 1988). 장애인식의 경험적 증거는 감각, 지각, 기억, 사색등의 의식적인 작용으로 자신의 외모, 사회제도, 주변의 상호작용, 경험등으로 형성되며 정체하지 않고 변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다.

장애인식에 대한 개념을 주의깊게 한 이론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발생되어 간호사나 일반인이 장애자를 대할 때 사회적 가치, 태도, 일상생활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자 모두가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자원을 가동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Ⅲ. 결 론

이상의 개념 분석을 통해 '장애인식이란 신체외모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일상생활의 기거등 기본활동이 부자유하다는 감각, 지각, 기억, 사고등의 의식 작용으로 그 사람의 태도, 경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타인과의 작용으로 변하는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개념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 1)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거등 기본활동의 부자유스러움에 대한 느낌이다.
- 2) 감각, 지각, 기억, 사고등의 의식적인 작용이다.
- 3) 주변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 4) 가치, 태도, 느낌, 경험으로 형성된다.
- 5) 역동적이다(변하며 정체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 보다 주위와 사회의 환경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잘 사정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도록 하여 사회에 동참하며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계기를 마련 해 주어야 한다. 또 장애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 문화 인식으로 나타난 속담, 은어, 속어등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은 장애인에 대한 미화된 속담등을 보급하는데 주력하여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며 장애자가 극복한 생활의 내용을 홍보해서 제도적, 환경적인 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그들을 정상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보다는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멸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화된 용어로 고쳐부르기는 하나 의식의 정화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순화된 용어라고 하지만 대상자의 의식구조 내부에는 부정적이고 열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 해주려면 일반인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또 장애자가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큰 문제이다. 장애의 수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록 자신의 인간적 가치에 회의를 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다. 따라서 장애자 자신이 사회 통합을 위하여 가져야 할 심리적 기제로서는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사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장애영향을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간호중재를 하는 것을 도울 것으로 본다. 대상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잠재력 있는 자이므로 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와 그들의 역할을 찾아줄 수 있

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위영(1991). 취업을 위한 장애인의 올바른 자세, 고용.
 고영복(1975). 현대사회학, 법문사.
 국민윤리교육연구회(1980). 현대사회와 윤리, 형설출판사.
 기무라우찌(1994). 정상인의 시각으로, 곰두리.
 김명선(1988). 정신지체아의 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주(1992). 일반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청구논문.
 김태길, 김동일, 박세일, 황경식(1988).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문음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1987), 동아출판사.
 문석남(1991).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역할, 고용.
 박용환(199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고용.
 송병락, 이원복(1993).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 동아출판사.
 송재선(1983). 우리말속담큰사전, 서문당.
 세계대백과사전(1982), 학원사.
 안병준(1991). 장애인의 직업제할과 과제, 고용.
 윤득중(1986). 최신사회학, 영성출판사.
 이경희(1992). 장애아동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구조모형, 대한간호 31권 5호.
 이상노, 이관용(1995). 성격의 이론, 중앙적성출판사.
 이송녕(1993). 최신국어대사전, 승문사.
 이청자(1995). 장애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일반자녀의 견해비교조사, 재활재단논문.
 정연석(1979). 현대교육심리학, 재동문화사.
 정은순(1993).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에 대한 자아 개념과 좌절감에 관한요구, 간호학회지 23권 1호.
 최영희(1992). 간호와 한국문화, 수문사.
 최정훈(1972). 지각심리학, 을지문화사.
 한국교육학회(1981). 한국교육철학의 문제점, 세영사.
 한국어문규정집(1995), 국립국어연구원.
 황옥남(1996). 경수순상환자를 위한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Bronfenbrenner.u.(1989)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JAI

- Carison, C.E & Blackwell,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J.B. Lippincott Company.
- Chinn, L.P. & Kramer, M. K(1985). Theory & Nursing. Mosby.
- Webster 영한사전(1987). 학원출판사.
- Fitts, W.H.(1971). A Conceptualization of the self concept. In W.H. Fitts J. L. Adams. The self concept and self actualization (11-26). TN : Counselor Recording and Tests.
- Fujita, M. T.(1972).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the chil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7(4),597-607.
- Kolb, L.E.(1959). Disturbance of the body image in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ew York : Basic Books, Inc..
- Levine, M. E.(1969). Pursuit of wholenes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 69(1). 98.
- Gath, A.(1972). The mental Health of sibling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J.Child Psychology psychiatry) 13, 211~218.
- Luckmann & Sorenson(1974). Medical- surgical nursing. W.B. Saunders Company.
- Geertz Chifford(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 basic Books Inc. Pub. Newyork.
- Hahn, R. A.(1985). Culture bound syndroms unbound. Social Science & Medicine. 21(2). 165-171.
- Harwood, A.(1981). Introduction: In ethnicity and medical care. In A. Harwood (Ed.), Ethnicity and medical care (pp. 1-36).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viland, W. A.(1987).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esook Suzie Kim(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 Leininger, M. M.(1978). Transcultural nurs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 Ka gawa-Singer, H.(1994). Cross cultural Views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Nursing, Vol.19.
- McCloskey, J. C.(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in nursing practice. Nursing, '76(5), 68-72.
- Mosby Nursing Ditionary(1979).
- Miller, B.F. & Keane, C. B.(1983). Encyclopedia & Dicyclo Pedia & Dictionary Medicin, Nursing & Health, 3rd, Saunders
- Mun Hall, P.L & Oiler, C.J. (1986) Nursing Research, Appleton-Centuy-Crifts.
- Norris, C.(1978).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 image: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s, coord. Carlson, 5-36.
- O'Brien, J.(1980). Body image: Mirror, Mirror, Why me?. nursing Mirror ,150(17),36-37.
- Pedretti, L.W., & Zoltan, B.(1990). Occupational Therpy: Practice Skills for Physical Dysfunction. 3rd ed. The C.V. Mosby Company.
- Rodriguez, J. A. & Jones E.G.(1996). Foster parent's early adaptation to the placement of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ir home. Journal of Pediatic Nursing , Vol 11, No 2.
- Ronald, A.& Troits, P. (1987).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llness. In B.J. Good (Ed.),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pp. 465-494). Dordrecht &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Spector, R. E.(1985).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 Norwalk: Appleton-Century-Crofts.
- Walker L.O & Avant K.C. (1988). Strategie for theong Construction in Nursing. Appleton & Lange.
-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77). Merriam Comp., U.S.A.
- WHO(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ys and Handicaps : A Manual of Classification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Disease. Geneva..

<abstract>

A Conceptual Analysis to Recognition of Disability

Chung, Myung Sill

In general, social cognition for a disabled person seemed that he was limited aspects of emotion and psychology. Thus he was rejected, avoided, worthless and not accepted.

People who have been raised in an ethnic collectivity often acquire from that experience not only basic concepts and attitudes toward health and illness but also fundamental styles of interpersonal behavior and concerns about the world. The effects of this enculturation carry over into health-care situation and also become an important influence on personal activities devoted to health maintenance and disease prevention.

Our Korean culture is a state of tradition Confucianism, respects his honor and external feature. Therefore recognition of a disabled person is more specific.

This study uses Walker and Avant's process of concept analysis. The concept of recognition of disability can be defined as follows : Recognition of disability is a person's conscious process of sensation, perception, memory and thought and is constructed from value, attitude, emotion and experience which is dynamics, and in everyday life is feeling that basic activity is not free and occurs interaction of environment.

Attributes of disability recognition are defined as

- 1) It is feeling that basic activity of his daily life is not free in everyday life.
- 2) It is a person's conscious process of sensation, perception, memory and thought.
- 3) It occurs interaction of environment.
- 4) It is constructed from value, attitude, emotion and experience.
- 5) it is dynamics(changing but not stasis).

Nurse is always supported and pushed him . She plans institutional and situational surroundings.

*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 Hany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graduate student (Doctor's course)